

미주지역 이민1세대 소설 비교 연구*

이기인(한림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감상과 체념 |
| 2. 상실감과 보상심리 | 5. 분노와 여유 |
| 3. 상처받은 자존심 | 6. 결론 |

1. 서론

재미한인문학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와 남미지역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¹⁾ 그간의 연구 성과나 방법에 관한 재검토 작업²⁾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도 이러한 작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21-A00118)

1) 『우리어문연구 34집』(우리어문학회, 2009. 5)에 캐나다 한인문학 특집으로, 송명희 「캐나다 한인 문단의 형성」, 김정훈 「캐나다 한인 시문학 연구」, 이상감 「경계와 탈경계의 긴장관계」, 김남석 「캐나다 한인문학비평의 전개 양상 연구」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영미 「미주지역 한인문학 고찰-캐나다와 아르헨티나의 한인소설에 대하여」(『내러티브』 13호, 한국서사학회, 2009. 5), 송명희 「캐나다 한인 수필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아이덴티티」(『한국언어문학』 7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9. 9), 이동하·정효구, 「재캐나다 한인 문학의 몇 가지 특징」, (『재미한인문학연구』, 월인, 2003) 등이 있다.

2) 이명재, 「미주 한인문학의 현황과 특성」, 『국제한인문학연구』 3집, 2005

업의 하나이며, 미주지역 이민1세대 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미주지역의 이민1세대 문학은 한 시대를 구획할 시기가 된 듯하다. 근래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1세대 작가는 대부분 7,80년대 정치 경제적 혼란기에 한국을 떠난다. 이후의 이민이 국력의 신장과 교포사회의 안정이란 후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당연히 같은 이민1세대라 해도 이민 환경과 체험에 따라 서로 다른 문학적 성향을 보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 이후 본격적 이민의 첫 세대에 해당하는 일군의 작가들을 묶어 그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³⁾

지금까지의 이민1세대 소설에 대한 연구는 대개 문학적 수준이 뛰어난 작품이나 개별 작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⁴⁾ 연구자들은 우수한 작품이나 작가를 발굴하고 이민문학의 새로운 경지나 의의를 밝혀냄으로써 앞으로의 방향 제시까지 의도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대단히 의미있는 연구지만, 이민1세대 소설의 일반적 양상을 밝히는 것과는 성질이 다른 작업이다. 본고는 그들의 작품에 일관된 주요 관심사에 주목한다. 비록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식상한 소재라 하더라도 그들이 즐겨 다루고 표현한 것

박연옥, 「재미 한인문학 연구의 현단계」, 『국제한인문학연구』 3집, 2005
 장영우, 「해방 후 재미동포소설 연구」, 『상허학보』 18호, 상허학회, 2006
 홍경표, 「미주 이민문학의 현황과 전망」, 『국제한인문학연구』 2집, 2004
 김종희, 「시·공간의 변화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탐색」, 『국제한인문학연구』 2집, 2004 등이 있다.

3) 그동안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은 미국 주류문단에서 주목받는 영어 작품에 집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어로 창작된 이민1세대 문학은 소외되어 왔다. (장영우, 앞의 글, 309~312쪽) 그나마 해방 전 작품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해방 후 이민1세대 작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대표적으로는 한영국과 김혜령에 주목한 이동하의 「20세기 초와 20세기 말의 재미한인 소설」(이동하·정효구, 앞의책)과 「김혜령의 소설세계」(이동하·정효구, 앞의책)가 있다. 그 외에 송명희, 「미서부지역의 재미작가 연구」(『비평문학』 16호, 2002. 7), 이상갑, 「재미 한인소설의 변방의식과 탈식민성」(『어문논집』 60호, 민족어문학회, 2009. 10) 등이 있다.

들을 통해 이민1세대의 문학적 성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민문학의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이 이미 있고⁵⁾ 그 내용 또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예상은 종종 사실과 다르다. 대상 작품의 선정에 따른 차이일 수 있겠지만, 이민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인종차별이나 자녀 교육, 세대간 갈등이 의외로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이민1세대 소설의 객관적 조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작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검토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작품의 평가를 선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작품의 질적 수준이 탁월하다거나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작품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다수의 작품에 나타나는 현상을 토대로 진행된다. 소수이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특징들도 있겠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특히 본고는 미국의 경우와 캐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각 지역에 따른 차이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캐나다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대상 작품과 작가가 많지 않아서 검토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민1세대 소설의 특징을 밝히는 데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출간된 이민1세대 작가의 작품집을 대상으로 삼았다.⁶⁾ 이민 이후에 등단한 작가들의 작품집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상재되기 때문이다. 2000년 이전에 발간된 작품집의 경우 이민 이전부터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들의 것이 많아서, 본고에서 의도하는 ‘이민1세대 문학’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⁷⁾ 작품집은 한 작가

5) 김윤규, 재미 한인 이민소설 소설의 갈등구조, 『문학과언어』 24권, 문학과언어연구회, 2002. 김윤규의 연구는 『뉴욕문학』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 작품이 다른 때문인지 본고의 검토 내용과 몇 가지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6) 대부분의 논자가 재외한인작가들이 모국 지향적 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명재, 앞의글, 38~39) 그러나 이민1세대의 작품은 어차피 미국문학으로 편입될 수 없으며(장영우, 앞의글, 318~321 참조), 모국의 독자들과 만날 때라야 소중한 문학적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의 지속적인 작품 활동의 산물로, 그의 일관된 문학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검토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우수작을 중심으로 한 선집들을 제외했는데, 작품 선정 과정에서 문학적 성과를 중시함으로써 혹시 이민문학의 일반적 특성들이 식상한 소재란 이유로 배제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상실감과 보상심리 - 중년의 사랑

재미 이민1세대의 작품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중년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 많다는 것이다. 사랑은 물론 아주 흔하고 오래된 소재다. 그러나 청춘 남녀가 아닌 중년의 사랑이, 그것도 상당한 빈도로 반복되는 것은⁸⁾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게다가 이 사랑의 서사는 필요 이상으로 진지하여 감상의 과잉이란 우스꽝스런 모양이 되고 만다. 아무튼 노년에 접어든 작중인물이 남편과의 사랑을 문제삼거나 불륜에 가까운 애정 행각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이 사랑은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의 탈출, 첫사랑과의 재회, 솔로들의 때늦은 연애, 성적 욕망과 외도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이 온전치 못한 가정을 배경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헤어지자고 남편이 말을 꺼냈을 때 나는 솔직히 놀라거나 비통해 하는 감정은 추호도 없었다. 정리할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다. 타인처럼 살아온 지난 날을 후회하지도 않았고(전상미, 「잃어버린 세월」, 139)⁹⁾

7) 본고의 의도에 적합하지 않은 몇몇 장편들과 이민생활과 무관한 상상력을 보여준 작가의 작품들도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예컨대, 박요한, 연규호, 임혜기, 정정희, 최정열 등.

8) 이연호와 이영목을 제외한 작가들이 최소 두세 편 이상 이런 소재를 다루고 있다. 특히 전상미, 조정희, 박경숙이 많이 다룬다.

9) 작품 인용은 (작가, 작품명, 면수)로 부기하고, 본문 중에는 (작가 작품명)만 밝힌다.

이들 작품에서 부부는 대개 파경에 처해 있다. 이미 오랫동안 남남처럼 지내온 부부, 상대에 대한 배려나 대화가 없는 모습은 물론, 의처증이나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했거나 불륜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가정도 적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 자녀들은 성장해 집을 떠났거나 죽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최소한의 가정적인 분위기조차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가정은 휴식과 위안의 장소여야 마땅하지만, 작중인물들은 오히려 외로움을 느낀다. 중년의 사랑은 이렇게 피폐하고 삭막한 가정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은재는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매 순간을 아끼고 마음을 졸였다. 쉬는 날도 별로 없이 새벽에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피곤하고...(중략)... 영진을 대학에 보내고 나서 은재는 꽤 여러 달 동안 허탈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다. ...(중략)... 은재는 갑자기 아이가 없는 집에서는 어떻게 웃어야 할지, 약착을 떨지 않아도 되기에 남아도는 시간에는 어떤 표정을 지으며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난감해져 버렸다.(김혜령, 「두개의 현을 위한 협주곡」, 148)

중년은 위험한 나이다. 문득 지나간 세월이 무의미하게 다가오고 삶의 허망함에 눈을 뜨는 시기인 것이다. 게다가 이민1세대에게는 갱년기 증후군뿐만 아니라 힘겨운 이민생활을 겪고 난 다음의 허탈함이 더해진다. 은재의 남편은 둘째 아이를 잃은 충격과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술에 취해 지낸다. 그녀는 남편을 대신해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왔지만, 아들이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로 떠나버리자 삶의 목표를 상실해 버린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방향을 용납하고 싶지 않다. 남편과 이혼한 은재는 막막하다. 오로지 아들의 성장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건뎠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민1세대 소설은 대부분 이러한 상실감을 바탕으로 그 텅 빈 가슴을 채워줄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다. 사랑은 바로 이 상실감과 관련되어 있다. 위안과 보상으로 사랑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다. 게다가 사랑이란 누구

에게나 가능한, 흔하고 손쉬운 소재인 것이다. 이민자에게 있어서 중년의 나이에 인생의 보람을 추구하거나 사회적 성취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시절은 지나가 버렸으며 꿈과 욕망은 접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렇지만 사랑의 감정은 아직 남아서 새로운 활력을 느끼게 한다. 중년의 사랑은 헛되이 지나버린 인생과 그 보상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소재다.

은재가 남편과 이혼하고 결혼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서교수의 화실을 찾는 것은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서교수는 이미 죽었지만 그녀는 그의 기억을 되살리며 그림에 몰두함으로써 평안을 얻는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았어. ...(중략)... 외관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언제나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고 가장으로서의 임무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지. 헤어스타일, 옷 스타일은 물론이고 나중엔 내 사상이나 사고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뜯어고치려 들었어...”(조정희, 『꿈꾸는 티아레』, 95)

의사인 최승규와 화랑을 관리하는 최혜리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완벽한 부부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옷차림에서부터 만나는 사람, 화랑의 운영방식까지 철저히 간섭하는 남편 때문에 숨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그녀는 결국 그림을 그린다는 핑계로 남편에게서 벗어나 남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떠나고, 그곳에서 프랑스인 의사 마이클을 만난다. 멋진 자연을 배경으로 한 마이클과의 만남은 낭만적이고 아름답다. 마치 소녀의 꿈같은 이 사랑은 중년의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랑은 남편의 간섭, 의처증, 폭력과 대조되면서 그녀의 질식할 것 같은 삶에 한줄기 숨통을 틔워주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마이클의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오자 그녀도 조만간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힌다. 마이클과의 자유로운 한때를 즐기지만, 파국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녀의 일탈은 가정이란 굴레를 깨뜨릴 만큼 강렬하지 않다.

“선생님, 우리 저 회전목마 한 번 타요.”

지숙은 어린아이처럼 박 선생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좋지. 나도 실은 타고 싶었어.”

...(중략)...

박진우는 제일 큰 백말을 짚었다. 지숙은 그 옆에 좀 작은 갈색 말을 택했다. 두 사람이 말에 오르자 다시 음악이 흘렀다. 하얀 말과 갈색 말은 원심대를 향해 돌아갈 뿐 서로 만날 수 없었다. 하얀 말이 오르면 갈색 말이 내리고, 갈색 말이 올라갈 때는 하얀 말이 내려갔다. 그러한 엇갈림이 계속되었다.(조정희, 「바다와 목마」, 27)

지숙은 흑인폭동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여고시절의 영어선생 박진우를 발견한다. 당시 그들은 선생과 학생이란 신분을 떠나 애뜻한 사랑을 느끼지만 몇 번의 만남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지숙은 수소문 끝에 박진우를 만나고, 두 사람은 30년 전의 과거를 반추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회전목마처럼 그저 스쳐지나가면서 웃어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지숙과 박진우의 가정은 별로 불행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흑인폭동으로 잿더미가 된 가게를 배경으로 한 이들의 삶은 고달프고 외로워 보인다. 그저 잠깐의 만남을 통해 지난날을 기억해 보는 것만으로 상당한 위안을 느낄 만큼 그들은 삭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각자 가정이 있는 이들의 만남은 도덕과 부도덕의 위험한 경계에 놓여 있음에도 윤리의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다.¹⁰⁾

몇몇 예외적인 작품이 있지만,¹¹⁾ 이 중년의 사랑은 대부분 일시적인 만

10) 현길언은 이를 나그네의 삶을 다루는 이민소설의 양식적 특징으로 설명한다. (현길언, 나그네 삶의 진실과 그 양식, 조정희소설집 『그네타기』, 한국소설가협회, 2003, 252~254쪽) 필자는 이들의 사랑이 이민생활의 상실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적 성격이어서 윤리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남으로 끝난다.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는 설렘과 멋지고 이상적인 상대에게서 느끼는 황홀함은 잠시일 뿐이다. 그들은 다시 만난 상대에게 실망을 느끼거나,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한 사랑임을 깨닫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상실감과 관련된 또 다른 소재로 작중인물의 예술적 취향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에서 음악이나 미술에 관한 삽화나 이에 심취한 작중인물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지금 민이 말하는 동료의식이란 말하자면...(중략)... 5%의 적은 무리에 함께 속한다는 반가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천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자신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턱없는 은밀한 자긍심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물론 그것이 편견에 불과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백훈, 「화려한 감옥」, 19)

클래식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이 5%라는 통계에 화자는 자신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낀다. 그것이 편견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는 화자의 모습은 서글프다. 그는 박사를 마치고도 교수가 될 수 없는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미국으로 건너와 코리아타운의 무허가 택시기사가 된다. 클래식이나 '수준 높은 문화'라는 생각의 바탕에는 이런 처지에 대한 자조와 열패감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림이나 음악은 미국에서 사회적 성취를 기대할 수 없는 이민1세대들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언어의 장벽이나 사회적 관습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물론 이민생활의 고달픈 여건 속에서 예술적 성취를 이룬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작중인물들은 여전히 그림이나 음악에 집착한다.

11) 새로운 만남이 성공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백훈의 작품들과 전상미의 *가을여자*가 있다. 백훈은 상대적으로 젊고 독신인 인물의 결혼을 다루지만, 이민생활의 상실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같다.

비록 실질적인 성취를 이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고상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꿈만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몇 번째인가 남편이 자다가 깨어보면 없어진 나를 그림방에서 찾아내고는 했었다. ...(중략)... 남편은 걱정 끝에 친구인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했다. 그리곤 신경쇠약증세로 오는 몽유병이라는 진단으로 받아온 약이 발롬이었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들기고 나면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에서 입으로 들어오는 그 약을 받아 먹는다.

...(중략)...

삼켜버린 약들이 나의 불씨를 소멸시키지 못하리라고 그 언젠가, 억제해 온 불꽃을 위한 휴식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나는 미소와 생각을 숨긴다.(최유혜, 「몽유병」, 93)

예주는 재능있는 미술학도였지만, 지금은 평범한 주부가 되어 있다. 남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림을 포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삶의 터전을 바꾼 이민자에게 있어 가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신의 성취는 유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꿈은 중년의 고비에 들어서면 심각한 상실감으로 돌아온다. 예주는 남편이 잠든 밤에 몰래 그림방에 와서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들여다보며 감상에 젖는다. 남편은 이런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몽유병 약을 먹인다. 그림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그녀는 언젠가는 다시 그림을 그리리라고 마음을 다진다. 그 때를 위해 지금은 몽유병 약을 순순히 받아 먹는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꿈일 뿐, 실제로는 지나가 버린 날들에 대한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중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음악이나 그림에 대한 애착도 작중인물의 상실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작중인물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행위를 계속한다. 아직은 고상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스스로에게 거는 자기 최면인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현실을 잊고 위안을 받는 것이다.

이민1세대 소설의 바탕에 흐르는 주된 정서는 상실감이다. 작중인물들은 힘겨운 이민생활에 지쳐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지만, 어디에서도 위로 받지 못한다. 이 상실감으로 뒤늦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예술에 매달려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미진하다. 결핍된 삶과 상실감, 그리고 그 보상을 찾아 방황하는 모습이 이민1세대 문학의 주요 관심사인 것이다.

3. 상처받은 자존심 - 사회적 관계의 회피

이 상실감은 사회와 고립된 이민생활에서 온다. 이 글에서 이민1세대들이 미국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거론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일 것이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 인종차별, 그리고 한국에서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단순 노동과 경제적 어려움 등등.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했던 친지, 한인들과의 반목이나 다툼도 이들의 이민생활에 적지 않은 난관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민자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심각한 무력감에 빠지는 등 심리적인 충격이 컸으리란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작품에 폐쇄적이고 고립된 모습의 작중인물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민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사회 구성원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민1세대 소설의 작중인물들은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미국 사회의 주류계층인 백인들의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 없으며, 소수민족인 흑인이나 히스패닉과의 관계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심지어는 같은 한국 교민들과의 관계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는 이들 작품이 작중인물의 사회적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나 심리를 그리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이들 작품에서 주류계층인 백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고의 대상작품 중에서 백인이 등장하는 작품은 한 편의 장편¹²⁾과 네 편의 단편뿐이다. 세 편의 단편(조정희 「꿈꾸는 티아레」, 전상미 「하얀 겨울」, 박경숙 「방한

간」)에 등장하는 백인 남자는 공교롭게도 유사한 역할로 설정된다. 그들은 멋진 외모와 예의바른 태도로 작중인물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이들은 작중인물이 처한 불행한 가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적 인물일 뿐이다. 즉, 굳이 백인이 아니어도 무방한 역할인 것이다. 나머지 한 편은 이언호의 「비둘기와 금발미녀」인데,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인해 정신 이상이 된 이웃집 딸과 노파를 다룬 작품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류계층인 백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지 않는다.

백인과의 인간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민1세대가 미국 주류사회에 진입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그 일차적인 원인은 언어의 장벽, 미국의 사회적 관습 등의 현실적 조건 때문이겠지만, 이민자들의 심리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작품에 나타난 백인 또는 미국사회에 대한 작중인물의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애초에 백인의 등장이 없다는 점 자체가 그들에 대한 부정적 심리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적대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단편적으로 보이는 반미국적 표현들도 백인사회를 향한 것이다.

미국인은 평소엔 신사 같아 보여도 이해관계에 있어서만은 천만의 말씀이다. 또 십 달러 주고 산 옷을 망쳐냈으면 백 달러 주고 샀다 하는 사람이 미국인이다. 다 떨어진 옷도 새 옷이었다고 우겨대는 사람이 또 이들도.(이언호 「길가는 사람들」, 16)

보통 때는 미소도 잘 흘리던 그였는데 나를 한 번 흘깃 바라볼 뿐...(중략)... 이웃의 홀로 사는 동양여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 냉랭함이 감돌았다.(박경숙, 『구부러진 길』, 49)

백인들의 사회는 비정하고 무자비하다.¹²⁾ 미국 생활에 서툰고 의사표현

12) 최유혜, 『천사들의 도시』, (주)다트앤, 2009. 이 작품은 노숙자의 생활을 그린 작품인데, 두 명의 백인은 삽화적 인물인데다, 사회적 역할이 없는 노숙자란 점에서 백인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13) 임현영, 온몸으로 그리워하기, 권소희소설집 『시타커스, 새장을 나서다』,

도 부족한 이민자에게 백인들의 철저한 개인주의는 낯설고 두려운 것이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한없이 친절하고 예의바른 모습이지만 조금이라도 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이민족의 냉랭함을 드러낸다. 때문에 백인들의 여유와 친절은 그들의 부와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우월의식으로 비친다.¹⁴⁾

녀석이 제 조상을 잘 만나 허여멀건 피부에 늘씬한 체구에다 푸른 눈을 빛내며 작은 키의 나를 내려다보고 얘기할 때면 어느 땐 그녀석이 주인이고 내가 종업원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박경숙, 「동굴을 떠난 동굴나라 사람 하나」, 123)

찬욱이가 좋아하던 아이는 금발의 백인 아이였어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 집 부모가 반대를 했어요 ... (중략)... 그 백인 애도 찬욱이를 몹시 사랑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서로 맞는 환경끼리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인종까지 다르니 ... (중략)...

빈뜻하게 서 있는 도시 건물은 부러움이었고 동시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쑥하고 허여멀건한 얼굴들은 증오의 대상이었다. 반질반질한 건물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하는 굳게 닫힌 성벽이었다.(권소희, 「시타쿠스 새장을 나서다」, 263~264)

멋진 외모나 당당한 태도, 여유 있는 행동의 백인 앞에서 어눌하고 조그만 이민자들은 주눅들고 위축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열등의식은 때로 백인에 대한 막연한 반감으로 이어진다. 찬욱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였지만, 인종차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다. 그의 죽음을 보면

한국소설가협회, 2006. 309쪽

14) ‘그것(인종차별)은 매우 은밀한 것이며 실물로 체감되기 어려운 것이어서 쉽사리 소설의 내용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김윤규, 앞의 글)에서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인종차별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작품의 작중인물들은 인종차별을 받을 만큼 백인과의 관계가 없다. 대부분 작중인물 혼자서 일방적으로 느끼는 인상이나 선입견의 형태로 드러난다.

서 화자는 인종과 빈부의 차이에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이 적대감은 사회적 정의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 허드렛 일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못가진자의 열등의식이다.

개인으로 묘사되는 백인은 여유있고 당당하다. 게다가 멋지고 친절하여 작중인물의 마음을 사로잡는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백인들의 사회는 이민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냉정함을 가졌다. 그 앞에서 이민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민자의 열등의식은 점차 반감과 적대감으로 바뀌고 스스로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백인보다는 자주 등장하는 편이다. 실제 이민1세대들의 삶이 이들과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들 이민족과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작품 속 흑인의 역할이 작중인물과의 인간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흑인은 주로 강도, 살인으로 작중인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작중인물이 겪는 험난한 이민생활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일 뿐, 흑인과의 인간적 갈등이나 화해의 문제로 확대되지 않는다. 간혹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선량하고 낙천적인 성격이 강조되곤 하지만, 대부분 등장인물도 없이 작중 화자의 간단한 언급으로 제시될 뿐이다.¹⁵⁾

안설희의 「섬」은 흑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태도를 다룬 몇 안되는 작품중 하나다.¹⁶⁾ 은혜 부부는 흑인 거주지역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한다. 흑인 동네에서 돈을 벌면서도 백인 동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행

15) 예컨대, ‘그래도 그들은 겉모습만 공포스럽지 사실 인정 많기는 냉정한 백인보다 낫다고 찬욱이는 종종 말했다’(권소희, 「시타커스, 새장을 나서다」, 251)처럼 간단하게 언급된다. 흑인, 히스패닉이 조금이나마 의미있게 등장하는 작품은 조정희의 「그 후에 내린 비」와 「마리아의 꿈」, 이영목 『워싱턴 달동네』 정도다.

16) 이외에, 「가장 잃은 가족의 고통과 흑인 강도와의 화해 과정을 그린 이언호의 손」이 있음.

태를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가게 이층에 살림집을 차리고 흑인들 틈에 섞여 함께 생활한다. 물론 부족한 영어로 의사소통도 어렵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가게의 단골인 흑인 이웃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제는 인사와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가깝게 지낸다.

일요일에 온 가족이 한인교회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일 가게 윗층에 갇혀 지내다시피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루하루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아직은 그럴 형편이 못 되었다.(안설희, 「섬」, 166)

은혜 가족은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해 놓고, 도심 속에서 고립된 섬처럼 살고 있다. 강력 사건이 빈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것이다. 예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흑인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과 어울려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위안을 삼아 보지만, 아무래도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은혜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이성적 태도와 감옥처럼 갇혀 지내야 하는 흑인 동네를 떠나고 싶은 솔직한 감정이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인종차별이 옳지 않다는 당위는 현실의 생활 감정 앞에서 무력하다. 이민자들에게 흑인과 히스패닉은 기피의 대상이다. 작중인물들은 의견상 타 인종을 차별 없이 대하는 듯하지만, 은연중에 배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이는 타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멸시라기보다 한국인끼리만 모여 살고 싶다는 소극적 성격에 가깝다.¹⁷⁾

17) 이와 관련하여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보는 관점은 재고가 필요하다. 예컨대, 흑인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작품(권소희 「시타커스, 새장을 나서다」, 이영목 『워싱턴 달동네』)의 경우 작중인물은 배운 것도 없고 막노동으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흑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 반면 흑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보이는 인물은 흑인보다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거나 흑인의 폭력을 겪어본 경우로

안설희의 「숲 속의 쉼터」는 노인들의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최정인의 성실한 자세와 꿈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불우한 한국 노인이 두 명이나 등장하는데, 이들을 돌보는 정인의 친절은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넘어서 한국인에 대한 끈끈한 정을 드러낸다. 특히 ‘이 땅의 한국 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설립’하겠다는 결심이나 ‘양로원이 아니라 경로당이라고 부르겠다’는 대목에서는 배타적인 민족의식이 감지된다.

“진돗개는 한눈에 봐도 코리안 도그인 줄 아는 외국인들이 많을 텐데요. 저렇게 무책임하게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저 진돗개들이 저렇게 굴러다니다가 똥개나 퍼트리면…….”(최유혜, 「황구」, 200)

이 작품은 진돗개에 빗대어 인종 간의 혼혈이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암시한다. 아무리 묶어놓고 조심시켰어도 화자의 황구는 색색의 새끼를 출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심 사상과 별개로 무심중에 한민족과 이민족을 구분하려는 작중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 진돗개를 아무데나 버리는 일과 같은 사소한 행동조차도 외국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신경을 곤두세운다. 이런 의식은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외국인의 구별하고 편을 가르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공원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보며 화자는 그들이 한국학생이었다면 학교에 가라고 독촉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한인들끼리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모습이나 그걸 보고 외국인에게 불쾌감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태도(백훈 「블루 애비뉴」), 한국에서 전해지는 부끄러운 소식들로 떨시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박경숙 「동굴을 떠난 동굴나라 사람 하나」)에서도 민족에 대한 과잉 의식이 드러난다. 특히

설정된다. 흑인에 대한 기피에는 인종적 차별과 빈부나 지적 수준의 차이가 섞여 있다. 인종차별에 관한 연구로 이상갑의 재미 한인소설의 변방의식과 탈식민성」(어문논집 60호, 민족어문학회, 2009. 10)이 있음.

이민족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¹⁸⁾을 보인다. 민족적 동질감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는 쉽게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이어진다.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대한 기피에는 이런 배타적 민족의식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민1세대의 작품에서 한인 또는 한인사회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이영목과 백훈의 작품에 한인들의 생활상이 반영되지만, 정작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한인사회와 무관한 것들이다. 이영목은 속고 속이는 한인들의 이권 다툼을 통해 사기, 폭력, 매춘, 마약 등 부정적 사회상을 폭로하는 데 주력한다. 백훈은 한인타운의 사설 택시회사, 상인들, 교회 등 꽤 많은 한인사회를 다루는데, 작품의 초점은 개인의 내면의식에 맞춰져 있다. 이들의 작품 이외에는 피상적으로라도 한인교회나 한인단체가 등장하는 작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¹⁹⁾ 이는 한인사회에 대한 작가의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

집을 소개해 준 복덕방 레이디는 특종 뉴스 감이라도 발견한 듯이 인헤가 이사 들어오는 날 와서 너의 집에서 인쪽으로 두 번째 집이 한국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며 떠들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자국민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하고, 그녀는 덩덤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조정희, 「겨울비」, 192)

확실히 이민1세대 소설의 작중인물들은 자국민을 멀리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대개의 작품에서 한인사회와 거리를 두려는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단편적인 부분들만으로도 한인사회 또는 한인과의 만남을 꺼리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²⁰⁾ 따라서 작품의 배경도 대

18)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은 없으며, 무심코 언급된 부분들(전상미, 잃어버린 시간, 146쪽, 안설희 아버지의 눈, 193쪽)이 있음.

19) '인간성 회복 봉사회'란 단체를 설정한 박경숙의 안개의 칼날은 회장의 불륜을 다룬 작품이고, 조정희의 그네타기, 겨울비, 박경숙의 『구부러진 길』의 한인교회는 사랑의 상대를 만나는 계기로만 작용한다.

20) 예컨대, '그럼 한인타운에서 만나지?' '거긴 무서워서 잘 안나가요.' (전상미

부분 한인사회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외국 여행지, 바닷가나 계곡, 한인이 거의 살지 않는 도시, 한인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백인거주지역의 저택 등이 사건의 주요 무대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착실히 쌓아왔던 경력과 학력은 이 낯선 사회 안에서 철저히 무시되었고, ...(중략)... 이미 녹이 슬어버린 자부심과 고급스런 취미는 오히려 없던 것만도 못한 흉한 몰골이 되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와 나는 서서히 미국의 서민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하며.....(박경숙, 「죽음을 옆구리에 끼고」, 197)

이것은 일종의 패배감이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중산층이나 지식계층이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단순 노동밖에는 할 수 없다. 이들은 과거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진 자신의 처지를 감수하지 못하는 것이다.²¹⁾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부정이나 부끄러운 전력이 드러나는 것도 두렵고(전상미 「A시의 가족」, 이영목 정글에 뛰어들어), 초라한 자신의 처지를 내보이기도 싫은 것이다(최유혜 「등 뒤의 그림자」, 권소희 「시타커스 새장을 나서다」). 이들은 모두 어떤 면에서 '내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²²⁾이다. 이들은 외국인보다도 오히려 한인들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이처럼 이민1세대 작품의 작중인물들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모든 면에서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는 백인, 두려움이나 기피의 대상인 흑인,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고 싶은 한국인. 모두가 이민자에게는 마음이 편치 않은 상대들이다. 이들과 거리를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과 고립된 외톨이로 남게 된다.

『오후의 외출』 166)와 같은 간단한 대화나 묘사 속에 한국사회에 대한 회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1) 백훈의 작품은 대부분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2) 박경숙, 「동굴을 떠난 동굴나라 사람 하나」, 136

4. 감상과 체념 - 작중인물의 내면세계

사회적 인간관계가 배제된 이민1세대 소설은 작중인물 개인의 문제에 집중한다. 부부, 가족, 애인, 친구 등, 극히 제한된 몇몇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작중인물의 내면세계다. 그것은 대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픈 과거사나 불행한 사랑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²³⁾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입양고아로 거친 세상에 던져진 불우한 인생, 아무 잘못도 없이 시집에서 쫓겨나거나 결혼을 거부당한 채 떠나면 이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여성 등. 이들 작중인물들은 대개 서글프고 외롭다. 작가는 작위적으로 보일 만큼 불행한 상황에 작중인물을 몰아넣고 심파적 감상을 극대화시킨다. 이민1세대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바로 이 감상의 토로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달리는 아스팔트를 바라보면서 지그시 자제하고 있었다. ...(중략)...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는 짐을 챙기려는데 아버지가 만류한다.

“그냥 두어라, 이모하고 먼저 집안으로 들어가거라.” 친근한 말투였다.

“그래 이모부 하시게 두고 들어가자.”

...(중략)...

응접실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박힌다.

세 가족의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내 동생이다 싶으니까 가슴이 뭉클했다.

(최유혜, 「낮선 땅에서 만난 소나기」, 227~229)

은하는 부모가 있지만 고아원에서 자란다. 시부모의 반대로 결혼이 좌절된 그 어머니가 몰래 은하를 낳았지만, 혼자서 기를 수 없었기 때문이

23) 김혜령, 백훈, 최유혜는 부모와 관련된 소재를, 전상미, 박경숙, 조정희는 불행한 사랑을 다룬다. 두 가지 소재를 모두 다룬 작가는 없다. 불행한 사랑은 대개 중년의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

다. 어머니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버지와 맺어졌으나, 딸을 고아원에 버린 모진 어미란 말을 들을까봐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 결국 은하는 난생 처음 부모를 만나면서도 이모, 이모부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작품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은하의 감정을 최대한 부각시킨다. 풍족하고 단란한 부모의 가정과 결혼도 안한 그녀가 두 아이를 입양하는 대조적인 설정, 작품 전체를 뒤덮은 감상적인 표현으로 눈물과 한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슬픔과 회한, 원망 등이 복합된 은하의 감정이 절제되지 않고 작품 전체를 가득 채운다.

이 작품은 모성애나 입양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다. 다만 극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격렬한 감정들을 여과없이 쏟아내는데 주력한다. 이는 이민자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는 드러낼 수 없었던, 억눌린 감정의 대리 분출에 가깝다. 은하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경험이나 같은 성질의 감상을 이민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지할 곳 없는 이민생활의 막막함을 이런 극단적 설정에 의탁하여 표출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던 어린 시절은 어머니도 살림 잘하는 평범한 주부였다.
그렇게 젊고 이름답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육남매를 버렸던 것이다.
...(중략)...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했던가. 그래서 나는 독신주의였지만 결국 뒤늦게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후 무사히 이십여 년을 넘겼다. 지금 내 가슴은 태양열에 태워도 남아있을 것 같은 한이 서리서리 또아리를 틀고 있다.(최유혜, 「그 남자 이름도 모르면서」, 154)

육남매를 버리고 남자에 눈이 멀어 떠난 버린 어머니는 원망의 대상이다. 이 원망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의 반작용이다. ‘어미가 있는 아들은 죽지 않는다’는 칭기스칸 어머니의 말이 그토록 가슴에 사무치는 까닭은 월남전에 자원할 때도 결혼식 때도 어머니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아픔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는 그렇게 미워하던 어머니를, 모든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모셔온다. 병든 어머니나마 자신의 차지가 되었다는 것이 기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린 것은 아니다. 이제 어머니는 늙고 병들어 요양원에 입원해 있다. 치매에 걸려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연민을 느끼지만,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던 상처는 문득문득 되살아나곤 한다.

남몰래 아이를 낳고 키우던 어머니의 괴로움과 다락에 숨어 살아야했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김혜령 「엄마의 다락」),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 아이를 키울 자신을 잃고 낙태 수술을 받는 여자(김혜령 「인비트로」), 자신밖에 모르는 인색한 아버지로 인해 차례로 집을 떠나 흩어져 사는 어머니와 형제들(백훈 「그림 속의 도시」) 등등. 과거의 상처와 관련된 소재는 이민1세대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들이 사건의 진상이나 갈등의 해소보다 그 아픔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간혹 오해가 풀리거나 화해로 귀결되는 작품이 있지만,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랜 세월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오는 화해는 오히려 원망의 감정을 부각시킬 뿐이다.

이민1세대 소설에서 과거의 상처는 극복하거나 초월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외롭고 고단한 이민생활의 응어리진 감상을 의탁해 표현하기 위한 매개물일 뿐이다. 더 이상 새로운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감상의 토로는 일종의 체념이다.²⁴⁾

비리는 등급과 보수를 낮추어 지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능력이 넘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이력서에 적어 넣었던 경력을 하나씩 지워나갔다...(중략)...

마침내 그의 이력서가 대학을 졸업한 직후와 엇비슷하게 되었을 때에야 그

24) 앞서 검토한 중년의 사랑도 새로운 사랑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체념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에게 임시직이 걸려들었다. ...(중략)...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었다. 어차피 모 든게 임시직. 사실 영구직이란 게 있나. 그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임시직 에서 임시직으로 떠돌았다.(김혜령, 「반달」, 170~171)

이 작품은 임시직 기간이 만료된 어느 날, 거리를 배회하며 온갖 상상에 빠져드는 초라한 중년의 내면 풍경을 그린다. 화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 지다가 뒤늦게 학업을 시작해 대학원까지 다녔으나 적당한 직장을 얻지 못하는. 임시직을 전전하며 마흔 중턱을 넘기는 동안 그는 자신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처럼 느낀다. 이와 동시에 가정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도 점 차 축소되고, 이제는 그가 사라져도 어느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 버린다. 문득 그는 자신이 사라져도 좋을 것이란 생각에 빠져든다. 어차피 영구적인 것은 없다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모습이나 보험금과 자살 을 몽상하는 그에게서 삶을 체념한 자의 짙은 허무를 느낄 수 있다. 물론 견인되어 가는 자신의 차를 목격하고 허겁지겁 뒤따라가는 모습에서 그가 어떻게든 현실에 맞춰 살아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 있지 않다.

이제 김주혜를 이야기하자. 내게 그린카드를 줄 수 있는 여자.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앞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미국에 있으려 하느냐고? 대 답은 간단하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에 돌아간다 해도 내가 할 수 있 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백훈, 「사막과 장미」, 136)

불법체류자로 미국에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땅한 일거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현우는 수고비의 삼분의 일을 교회에 헌금하기로 약 속하고 겨우 자서전을 대필하는 일을 맡는다. 그리고 애인인 신애를 포기 하고 영주권을 가진 이혼녀와 결혼하겠다고 마음먹는다. 미국에서의 생활 을 위해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이 결정의 밑바탕에

는 자존심을 버린 직업, 사랑의 포기 같은 체념이 깔려있다. 이 작품은 닷새의 금식을 끝내고 나온 화자 앞에 신애가 나타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사랑의 회복이란 암시에도 불구하고 체념의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현우를 둘러싼 삶의 조건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이군인 아버지의 비참한 삶에 대한 기억으로 이라크전쟁에서 불구가 되어 돌아온 애인을 외면했으나 결국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지인(권소희 「모래폭풍으로 머물다」), 대학 나온 아내에게 버림받고 소아마비 처녀와 맺어지는 가난하고 무력한 병두(전상미 「병두네 식구들」) 등은 표면적으로는 불운이나 허욕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말은 작중인물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떤 새로운 희망도 암시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다른 길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선택에는 체념의 그림자가 깃들여 있다.

그렇다고 이런 작품이 절망의 느낌으로 다가오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 체념에 내포되어 있는 자기 위안의 모습 때문이다.

“안돼, 이제 널 보낼 수 없어!”

민희는 어깨를 다잡는 기준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다.

“산다는 건 어차피 상실되어 가는 것이야. 나처럼, 언니처럼..... 너는 아직 온전해. 그리고 네 아내도..... 상실된 사람은 우리로 족해. 나는 네 삶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박경숙, 「털실 침대보」, 172~173)

이 작품은 사랑에 실패한 민희 자매의 불행한 삶을 다룬다. 민희는 기준의 가난과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하여 미국으로 떠난다. 하지만 그곳의 생활도 여전히 궁핍하다. 더욱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는 불행을 겪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지낸다. 그녀는 흔들리는 감정을 억제하고 다시 시작하는 기준의 제안을 거부한다. 그런데 화자의 체념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아직도 극기하듯이 자신의 불행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서도 상대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 태도는 어디서 오는가? 이는 자신을 향한 기준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미 체념한 삶이지만 아직 자신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존재는 상당한 위안이 된다. 민희는 겉으로는 매정하게 기준을 밀어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의 품안에 안주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결말은 그의 사랑을 간직하는 한편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결 따듯하다. 이러한 위안의 요소로 인해 그녀의 체념은 절망적이지 않다.

이 위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중인물의 내면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아직도 사랑받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 그를 위해 무언가를 참고 견딘다는 의식은 자신만의 위안이다. 마약과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준 첫사랑의 헌신적 노력을 고마워하면서도 그의 행복을 위해 떠나는 나영(전상미 고백), 멋지고 친절한 백인 애인을 두고 의치증을 보이는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여인들(전상미 하얀 겨울, 조정희 꿈꾸는 티아레),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택시운전수와 마사지사 여인의 만남(백훈 「화려한 감옥」) 등에서 이런 위안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위안은 종종 삶에 대한 각성으로 나타난다. 인물의 내면세계를 다루는 작업은 결국 삶을 성찰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 얼굴을 쳐다본다. 문신으로 새겨놓은 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꽃에 깔려 있는 붉은 점을 본다. 하지만 당당하다. ...(중략)... 지난 날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선명하게 솟아오르던 슬픔은 더 이상은 없다.(권소희, 「동물원에 가다보면」, 160)

얼굴에 난 붉은 반점 때문에 서른 여덟의 노처녀로 지내던 화자의 결혼은 애초부터 행복할 수 없었다. 남편이 점박이라고 부를 때마다 화자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음을, 버림받았음을 느낀다. 그래도 그녀는 식탁을

꾸미고 와인을 준비하며 행복을 가장한다. 이미 떠나버린 사랑에 집착하는 한, 얼굴의 붉은 점은 언제까지나 그녀를 슬픔에 몰아넣을 것이다. 어느날 화자는 사진관에 들렀다가 기괴한 모습의 선인장 사진을 본다. 그리고 척박한 사막에서 생존해야하는 선인장에게 아름다움이란 포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생긴 것은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당신의 붉은 점도 그대로 완벽해요'(158)라는 사진사의 말에 자신감을 얻는다. 사진사는 그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줌으로써 그녀를 자유롭게 만든 것이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지 않는다.

다음에 찾아갔을 때 사진사는 사라지고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유롭고 편안하다. 즉, 사진사는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랑의 상대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계기인 것이다. 이렇게 체념은 종종 삶에 대한 여러 형태의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누구나 오랜 세월의 방황 끝에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된다는 생각(김혜령 「두 개의 현을 위한 협주곡」), 죽음과 같은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밝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태도(조정희 「그 후에 내린 비」, 이영목 『워싱턴 달동네』), 각박한 생활 때문에 친구의 사소한 잘못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한 지난날에 대한 후회(최유혜 「등 뒤의 그림자」), 집을 나간 가족을 기다리며 한평생 살아온 할머니의 삶을 통해 알게 되는 기다림의 의미(박경숙 「방 한 칸」) 등등. 작중인물의 삶에 대한 깨달음은 다양각색이다. 비록 결말 부분에 와서야 단편적이고 암시적인 형태로 나타날 뿐이지만, 이 작은 자기위안을 통해 작중인물들은 희망 없는 나머지 인생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민1세대 소설은 외부 사회와 고립된 개인의 내면을 주로 다룬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과거의 불행했던 기억이나 실연 같은 소재를 매개로 하여 그동안 억눌렀던 외로움, 슬픔, 원망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작품이다. 이러한 감정은 이민생활의 상실감에서 오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체념과 짝을 이루는 것이다. 이 체념은 종종 절망적 현실을 견디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작품이 희망이 없는 삶을 그리면서도 완전한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자기위안 때문이다.

5. 분노와 여유 - 이종학, 장명길과 맹하린

이 장에서는 캐나다의 이종학, 장명길, 아르헨티나의 맹하린의 작품을 검토한다. 미국의 이민1세대 작가들이 보여준 문학적 특징을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작가들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확실히 이들 세 작가는 재미작가와 다른 면모를 보인다. 물론 그 원인이 이민국의 사회적 특성 때문인지 작가의 개성 때문인지 확실히 단정짓기 어렵다. 좀 더 많은 작가와 작품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문제다.

캐나다의 이종학과 장명길에게서는 재미작가와 유사한 면모를 볼 수 있다. 과거의 사랑과 그 상처, 어린시절의 어두운 기억과 같은 소재를 매개로 한 감상적 표현이 그것인데, 장명길의 「몽유도」, 「그림자 밟기」, 「풀의 기원」, 「물구나무서기」, 이종학의 「빨간 생철집」, 「돌을 던진 우정」, 「고향을 잃은 사람들」들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재미작가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점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재미작가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백인과의 충돌, 2세 교육과 세대 간의 갈등, 교민단체나 교회와 같은 교민사회 등이 흔히 다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이민자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민 생활의 실상과 애환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인간관계는 대부분 부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제임스가 애통한 빛까지 보이며 거짓말을 하자 옆에서 두어 사람이 그의 거짓말을 거들었다. 모두 같은 이웃들이라 안면이 있는 백인들이다.

“제임스의 말이 맞아요. 그는 가만히 서 있다가 헤딩 공격을 당한 것을 우리들이 똑똑히 봤어요.”

“나도 같은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박갑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명칭히 그들을 건너다 볼 뿐이었다. 한 경찰관이 허리에서 수갑을 풀어 들고는...(이종학, 「검은 머느리」, 16~17)

최권사의 남편 박갑수는 영국계 백인과 사소한 시비를 벌이게 된다. 그는 이웃 백인들이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고 경찰에 끌려가게 되자 울화를 참지 못하고 급기야 고혈압으로 쓰러진다. 그의 죽음은 흑인 여자와 큰아들의 결혼을 용납하지 못하는 최권사의 또 다른 인종주의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인종차별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삽화로 작용한다. 그러나 작품 속의 기능과 무관하게 백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강한 여운을 남긴다.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고발하는 이웃집 백인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이는 꿈을 꾸다거나(장명길 「이랑타기」), 백인 소년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장명길 「도망」)의 묘사에도 백인 또는 백인 사회에 대한 분노가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²⁵⁾

한편 재미작가에게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자녀 세대의 모습이 이들에게서는 빈번하게 다루어지는데, 역시 부정적인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문현의 아내는 정말 어려운 말을 했다. ...(중략)... 그러나 수잔의 대답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쏘리 마암, 마이 하우스가 아니니까 몰기지에 관계할 수 없어. 그건 어디까지나 마암하고 대대의 책임이잖아.”

“그레 그건 네말이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수입이 생길 때까지 몇 개월만 도와 달라는 부탁이다.”

“거절하겠어. 역시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이종학, 「집과 하우스」, 163)

문현의 아내는 과거 집 문제로 불행해진 언니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평생에 걸쳐 번듯한 집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딸들에게 그런 불행을 겪지 않

25) 이종학 「강통도 무거웠다」에는 백인의 긍정적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강통을 주워 파는 노인이 큰 부자였다거나 화자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내용은 이민자의 일상을 보여주는 현실적 인간관계로 보기 어렵다.

게 하기 위한 것이다. 손목을 다친 그녀가 어렵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딸은 냉정하게 거절한다. 문현의 아내는 섭섭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딸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딸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전형적인 캐나다인이고, 부모는 한국적 가족주의에 젖어 있는 구세대인 것이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세대 간 갈등의 양상은 다양하다. 인종주의나 족외혼 문제(이중학 검은 며느리, 「피가 부르는 소리」), 한국어 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이중학 피의 충동), 고부간의 갈등(이중학 남편의 마더) 등이 주로 다루어지지만, 혼자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는 딸(장명길 「드림 하우스」)이나 부모의 이혼조차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아이들(이중학 「빨간 생철집」)처럼 삭막해진 가족 관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외에 교민단체(이중학 「얼룩진 표창」)나 한인교회(이중학 「형제의 의미」, 「외로운 사람들」), 또는 교포들 사이의 갈등(이중학 「이전투구」, 「들리지 않게 된 물레질 소리」)들이 있지만, 대부분 편을 갈라 다투거나 속이고 싸우는 부정적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이들 작품에 나타난 현지인, 자녀, 교민사회와 관련된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부정적이다. 이는 이들이 그리려는 이민생활이 그만큼 각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각박함 속에서도 작중인물은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 재미작가의 작중인물들이 무력한 체념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이다.

만약에 내가 이 수모를 고스란히 당하고 난다면, 자기 아들 학배가 내일 학교에 가서 저 놈들의 노리개감이 되어, 벌벌 떨던 지애비의 못난 모습을 흉내 내며 놀려대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몰랐다.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저절로 어금니가 딱 깨물어졌다.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그렇게는 못한다.

...(중략)...

김달평씨는 부서진 의자다리 하나를 냉큼 집어들고는, 소리소리 지르며 너

석을 쫓아나갔다. 창밖에 있던 녀석들까지 대여섯 놈들이 후다닥, 쫓지가 빠지게 벌써 저만치 달아나고 있었다.(장명길, 「김달평씨의 하루」, 254)

상점을 운영하는 김달평씨는 매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 피곤하고 삭막한 일상,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이들.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왔지만 저도 모르게 한숨만 나오는 생활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의욕을 가지고 있다. 비록 통하지는 않지만 아내에게 반찬투정도 하고 외박한 딸을 야단치기도 하는 것이다. 칼을 들이대며 담배를 요구하는 백인 소년들과 맞서는 행동은 무모해 보이지만, 아들이 겪을 수모를 생각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용기를 낸다. 김달평씨는 비록 희망적인 내일을 기대하진 않지만, 아직 삶에 대한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냉담한 딸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번듯한 집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는 문현의 아내(이종학 「집과 하우스」), 둘로 갈라져 싸우는 교민단체의 화합을 역설하는 박주석(이종학 「얼룩진 표창」) 등, 많은 작품에서 작중인물의 다짐이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학, 장명길의 작중인물이 겪는 인간관계는 대개 부정적이다. 백인과는 인종차별이란 문제로, 자녀와는 개인주의적 생활 방식 때문에, 교포들끼리는 이권을 놓고 서로 모함하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모습 또한 삶의 현장이다. 그 속에 아직 삶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작중인물이 있는 것이다. 이는 삶의 현장과 괴리된 상태에서 과거를 반추하거나 체념 상태에 놓여 있는 재미작가의 작중인물과는 현저히 다르다.

아르헨티나의 멩하린에게서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나 실패한 사랑 같은 이민1세대 작가가 즐겨 다루는 소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이민1세대의 현지 적응 과정을 여러 측면에서 담아낸다. 현지인 종업원과의 갈등(「제2의 가족」), 이민사회에서 느끼는 문화적, 관습적 차이(「환우기」), 힘들었던 정착 과정과 자녀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살리다」, 「데이뜨로」),

교민들 사이의 관계(「세탁부」) 등, 이민자가 겪을 만한 일들이 차분하게 서술된다. 특히 멩하린은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과정과 관련된 현지인의 사연(「쌍둥이 형제의 행진」)을 다룰 만큼 이민사회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런 소재들은 재미작가의 작품에서는 다루지지 않았던 것들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내 나라를 떠나와 외국에 얹혀 지내는 생활이라는 것은 끈기를 가지고 시도해야 하는 암벽 등반처럼 고난과 두려움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 ... (중략) ... 그래서 속으로 다짐처럼 외칠 때가 있다. 융화, 공생, 공존, 가족, 제2의 가족. (멩하린, 「제2의 가족」, 98)

의류 소매업을 하는 혜영은 현지인 종업원을 가족처럼 여기며 지낸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수시로 물건을 빼돌려 왔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가능한 한 조용히, 종업원이 상처받지 않도록 미무리 짓는 혜영의 태도와 달리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당당하고 거침이 없다. 혜영은 그것을 뻔뻔함이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이해하려 한다. 잘 해줘도 소용없다는 주변의 충고를 무시하고, 현지인 종업원들과 가족처럼 지내려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중인물의 긍정적인 자세는 멩하린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자녀와의 관계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묘사된다. 친구처럼 농담과 충고를 주고받는 친밀한 모녀 관계(「세탁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한 교포 학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대학생 동조(「살리다」) 등, 자녀라기보다 오히려 친근하고 믿음직스러운 존재로 설정된다. 뿐만 아니라 교민들도 서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만 나타난다. 교민사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인적 친분관계로만 설정된 탓이 크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처럼 교민들끼리 서로 속이거나 다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작중인물이 현지의 삶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⁶⁾ 물론 멩하린의 작품에도 이민생활의 힘들고 어두

운 측면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이민 초기의 힘들고 고된 일과, 이민국 사회의 불안과 경제난, 현지인의 느려터진 생활 태도와 관습 등.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현지인의 특유의 낙천성을 닮아간다. 작중인물들은 어느새 느긋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일하던 도중에 창밖을 바라보는 자세라고 여겼던 「세탁부」였는데, 올라처럼 하루를 잘 마쳤다는 뿌듯함과 휴식의 기쁨을 기대하고 있는 듯 여겨져 올라의 어깨조차 가벼운 느낌이다.(맹하린, 「세탁부」, 67)

「세탁부」는 빨래를 끝내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을 그린 그림이다. 투박한 손과 검정 통치마의 자락이 삶의 곤핍함을 드러내고 있다. 올라는 삶이 피곤하고 마음이 삭막해질 때마다 이 그림을 바라보며 삶의 고달픔을 되새기곤 한다. 힘든 이민생활, 더욱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자꾸 울먹이는 남편 때문에 그녀는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기운이 나지 않는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어느날, 삶의 고단함으로만 느껴졌던 「세탁부」의 모습에서 힘든 일과를 마친 뿌듯함과 휴식을 기다리는 여유를 보게 된다.

이 평온함이 맹하린 작품의 주된 정서다. 이민자로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단함이 없지 않지만, 방황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서로를 위로하는 이웃, 그리고 현지인과 가족처럼 지내려 애쓰는 삶은 각박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녀의 작품은 이민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삶을 그려낸다. 혼자만의 내면으로 숨어들어야 할 이유나 사정은 없다. 힘든 이민생활을 겪으며 쌓인 슬픔이나 원망 같은 감상의 발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그녀는 재미작가와 전혀 다른 경향을 보인다.

26) 이영미는 청소년의 방황, 이질적 민족성의 대립, 재이민이나 현지에서의 탈출 등을 들어 정착에 실패한 것으로 읽는다. (이영미, 앞의글, 189~201) 그러나 이런 문제는 모든 이민자가 봉착하는 문제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이나 그러한 의지가 드러나는가 하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6. 결론

근래 미주지역 이민1세대 작가들이 다수의 작품집을 출간하였다. 이들은 정치, 경제적 혼란기인 7, 80년대 한국을 떠난 이주민들로, 이민사의 한 시대로 구분될 만하다. 본고는 이들의 작품집을 통해 미주지역 이민1세대 소설의 일반적 양상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다수인 재미작가의 작품집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특징을 분명히 하기 위해 캐나다의 이종학, 장명길과 아르헨티나의 멩하린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재미작가의 소설에는 이민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형상화되지 않는다. 백인은 물론 흑인도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교민사회의 모습도, 심지어 가정의 구성원인 자녀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현실 사회의 인간관계가 배제되는 것은 이민생활의 실상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들 작품은 개인의 내면세계에 집중한다. 그 양상은 대체로 이민생활의 상실감, 슬픔이나 원망 같은 감상의 토로, 그리고 삶에 대한 체념과 자기위안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들 작품에서 주로 다루지는 소재도 개인사에 국한되어 있다. 뒤늦은 사랑이나 그림, 음악 같은 예술적 취향은 행복한 가정도 사회적 성취도 이루지 못한 상실감을 드러내는 소재들이며, 불행했던 어린 시절이나 첫사랑의 실패는 고단하고 외로운 이민생활에서 쌓인 감정을 의탁하기 위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민1세대 소설은 희망 없는 이민생활과 작중인물의 체념을 그린다. 그 체념 속에는 간혹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섞여 있지만 일종의 자기위안일 뿐, 삶에 대한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다.

미국의 이민1세대 작가들과 캐나다, 아르헨티나의 작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캐나다의 장명길, 이종학의 경우 과거의 어두운 기억과 사랑의 좌절을 다룬다는 점에서 재미작가들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이민생활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백인, 자녀들과의 갈등, 교민사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들과 구별된다. 이들이 다룬 이민생활의 현상은 대부분 부정적이지만, 작중인물은 삶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맹하린이 그린 이민자의 삶은 대체로 편안하다. 특히 현지인, 자녀 세대, 교민들과의 인간관계는 앞서 두 나라의 경우와 달리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난다. 작중인물은 현지 사회에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그 결과 이민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 작가의 개성에 따른 것이겠지만, 이민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이민자의 욕망과 적응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작가에 대한 개별적 연구와 이민사회의 사회적 여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미주지역 한인문학, 재미한인소설, 재캐나다한인소설, 재아르헨티나한인소설, 이민1세대, 이민문학

<참고문헌>

1. 자료

- 권소희, 『시타커스, 새장을 나서다』, 한국소설가협회, 2006
김혜령, 『환기통 속의 비둘기』, 책읽는사람들, 2003
박경숙, 『안개의 칼날』, 푸른사상사, 2003
_____, 『구부러진 길』, 푸른사상사, 2003
백훈, 『불루 애비뉴』, 세상속으로, 2001
_____,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연인M&B, 2007
안설희, 『옥수수밭 이야기』, 월간문학 출판부, 2003
이연호, 『길 가는 사람들』, 책읽는사람들, 2002
이영목, 『워싱턴의 도박꾼』, 동연미디어, 2003
_____, 『워싱턴 달동네』, 청조사, 2009
전상미, 『두 여자 이야기』, 한국소설가협회, 2004
조정희, 『그네타기』, 한국소설가협회, 2003
최유혜, 『낮선 땅에서 만난 소나기』, 계간문예, 2006
_____, 『천사들의 도시』, (주)다트앤, 2009
맹하린, 『세탁부』, 월간문학 출판부, 2006
이종학, 『검은 머느리』, 백암, 2002
_____, 『눈속으로 간 여자』, 백암, 2004
장명길, 『풀의 기원』, 한국소설가협회, 2004

2. 논저

- 김남석, 「캐나다 한인문학비평의 전개 양상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34집, 2009. 5
김윤규, 「재미 한인 이민소재 소설의 갈등구조」, 『문학과언어』 24집, 2002.

- _____, 재미 한인 입양소재 소설의 문제인식, 『어문학』 78집, 2002.
- 김정훈, 「캐나다 한인 시문학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34집, 2009.5
- 김중희,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 _____, 「시·공간의 변화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탐색」, 『국제한인문학연구』 2집, 2005.
- 박연옥, 「재미 한인문학 연구의 현단계」, 『국제한인문학연구』 3집, 2005.
- 송명희, 「미 서부 지역의 재미작가 연구」, 『비평문학』, 16호, 2002. 7.
- _____, 「캐나다 한인문단의 형성」, 『우리어문연구』 제34집, 2009. 5.
- _____, 「캐나다 한인 수필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아이덴티티」, 『한국언어문학』 제70집, 2009. 9.
- 오양호, 「세계화 시대와 한민족문학 연구의 지평 확대」, 『한민족어문학』, 35집, 1999.12.
- 유금호, 「이민1세대, 그 외연적 허상 속 고독한 삶의 내면풍경」, 전상미소설집 『두 여자 이야기』, 한국소설가협회, 2004.
- _____, 「뿌리뽑힌 삶과 노스텔지어의 그늘」, 장명길소설집 『풀의 기원』, 한국소설가협회, 2004.
- 유선모, 『한국계 미국작가론』, 신아사, 2004.
-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 출판부, 2005.
- 이기인, 「재미 한인소설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37집, 2009. 6.
- 이동하, 「일상에의 얽매임과 초극을 향한 열망」, 김혜령소설집 『환기통 속의 비둘기』, 책읽는사람들, 2003.
- 이동하, 정효구, 『재미한인문학연구』, 월인, 2003
- 이명재, 「미주 한인문학의 현황과 특성」, 『국제한인문학연구』 3집, 2005.
- 이상갑, 「경계와 탈경계의 긴장관계」, 『우리어문연구』 제34집, 2009.5.
- _____, 「재미 한인소설의 변방의식과 탈식민성」, 『어문논집』 60호, 2009.10.
- 이영미, 「미주지역 한인문학 고찰 - 캐나다와 아르헨티나의 한인소설에 대하여」, 『내러티브』 13호, 2009. 5.
- 임현영, 「온몸으로 그리워 하기 - 권소희 소설과 작가적 매력」, 권소희소설집

- 『시타커스, 새장을 나서다』, 한국소설가협회, 2006.
- _____, 「뿌리 내리지 못한 황색인의 아픔」, 최유혜소설집 『낮선 땅에서 만난 소나기』, 계간문예, 2006.
- 장영우, 「해방 후 재미동포소설 연구」, 『상허학보』 18호, 2006.
- 현길언, 「대륙의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사람들-파탄된 사랑과 가족」, 박경숙 소설집 『안개의 칼날』, 푸른사상사, 2003.
- _____, 「나그네 삶의 진실과 그 양식-이민소설의 양식을 위하여」, 조정희소설집 『그네타기』, 한국소설가협회, 2003.
- 홍경표, 「미주 이민문학의 현황과 전망」, 『국제한인문학연구』, 1집, 2004.

[Abstrac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 Novels in Inter-America

Lee Ki-in

Recently we have witnessed an increasing publication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American immigrant novelists. They belong to the first group of immigrants after the amendment of the American immigration law in 1965. At that time the environment in which immigrants found themselves was far worse than now, and this poor condition was reflected in their novels. The present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American novels, paying attention to their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Korean-Canadian, and Korean-Argentinean novels.

In Korean-American novels, white and black characters are few and far between, and Korean-American social and domestic problems barely show up as their main themes. Immigrant realities and human relationships are ignored and do not receive literary spotlight. Instead, these novels focus their attention on inner world of individual immigrants. In that world, the feelings of loss, sorrow, resentment, despair, and self-consolation reside.

The first-generation Korean-Canadian writers have an affinity with

Korean-American novelists in that subject-matters like childhood memories and lost love are their favorite choice. Conflicts with the natives, inter-generational antagonism, and other mundane realities, however, are some of the relatively unique thematic features of Korean-Canadian novels. The literary representation of these realities is largely negative, but characters often show the strength of will and long for the brighter futur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Korean-Argentinean novels, the life of immigrants are usually depicted in a tranquil mood. The first-generation immigrants are interwoven with natives and second-generation children more easily than their American and Canadian counterparts. Protagonists strive to make a smooth entry into local society, and often settle in it successfully.

These differences are primarily a reflection of literary traits of the individual writers, but it is arguable that they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respective immigrant social milieu. The multi-level sources of these literary heterogeneities in immigrant novels in the Inter-American area should receive more serious attention from various theoretical viewpoints.

【Key words】 : Korean literature in Inter-America, Korean-American novel, Korean-Canadian novel, Korean-Argentine novel,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 immigrant literature

· 이기인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200-702)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전자우편 : kilee@hallym.ac.kr

이 논문은 2010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3월 2일에 심사완료되어 3월 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